

한국인의 전유물이라
여겨지는 한의학이지만,
누구보다 한의학의 세계화에
힘쓰는 '외국인 한의학자'가 있다.
한 의학을 향한 애정 하나로 한국에
정착한 우리학교 기후-몸 연구소
제임스 플라워스 박사를 만나봤다.



대학주보

“상아탑에서 벗어나 시대 이슈 해결해야”

김동희 기자 kdh0626@khu.ac.kr

김진상 제17대 신임 총장이 임기를 시작했다. 신문방송국 소속 4개 언론사(대학주보, 영어신문, 양 캠퍼스 대학의소리방송국)가 마련한 인터뷰에서 김 총장은 “학교를 전일적인 관점으로 보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구성원이 김 총장에 기대하는 것은 ‘최초의 이공계 출신이자 국제캠 출신’이라는 점이다. 우리학교 전자공학과 졸업생이자 교수이기도 했던 김 총장은 설립 이래 ‘첫 이공계 출신 총장’이라는 타이틀을 달게 됐다. 김 총장 역시 “그만큼 우리 구성원이 변화에 대한 기대가 많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반영된 것”이라며 “이공계 총장에 대한 기대는 구체적으로 기획했던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인가 정도로 받아들여진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공계 학문은 인문계에 비해 기획한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할 뿐만 아니라 실천 이후의 결과를 평가하고 피드백하는 등, 실천과 검증의 역할이 많이 부여되는 학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의 4년은 기획 다음의 실천을 강조할 것”이라며 기획 단계에서 그치지 않는 실천의 중요성을 되짚었다. 다만 이공계와 인문계 역량은 공존해야 한다는 것이 김 총장의 생각이다.

김 총장은 과학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앞으로의 대전환 시대에서 정답이 정해지지 않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상이 시작되는 처음을 찾는 데 필요한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지식이나 인문학적 지식이 과학 분야에도 필요하다”는 김 총장은 “앞으로 정답이 없는 분야를 개척해야 하기에 과학을 하는 사람도 인문을 알아야 하고 인문을 하는 사람도 과학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공명과 변전, 웅비하는 경희’를 취입사 제목으로 내걸기도 했던 김 총장은 ‘공명’을 핵심 가치로 제시

한다. 공명은 물리학 현상이자 인문학 현상이기도 하다. 김 총장은 “사람 사이의 협력도 공명이요, 미래 발전이라는 혁신 계획에 적극 동참하는 것도 공명”이라고 말했다. 협력과 동참의 가치인 공명이 제시하는 대학 직제와 인사 혁신에서의 창의적인 모델 구축과도 맞닿아 있다. 김 총장은 ‘컴퓨터 CPU의 병렬 처리’를 예시로 들며 “정책을 세울 때도 학생, 교수, 직원과 같은 이해당사자와 초기 기획, 디자인, 실천 단계까지 협업해야 한다”고 한다.

김 총장에게 또 다른 공명은 교육을 이루는 하나의 가치 사슬이다. 입학 후 학과를 선택하면 교과 과정, 교육 방법, 교육 환경, 교육 평가가 뒤따른다.

그다음 이어지는 사회 진출까지, 모든 과정이 교육을 이루는 하나의 가치 사슬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경희 가치에 부합하는, 세계적인 네트워크 역량이 있는 분을 교수로 모실 것”이라며 “실적이 좋은 교수는 70살, 아니면 평생 교육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현재 생각하고 있는 제도”라고 밝혔다.

직원의 성장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로의 성장’을 강조했다. “입사부터 퇴직까지 가급적 인사이동을 하지 않고 한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해야 한다”면서 “전환 시대가 요구하는 기업이 정신을 지닌 교직원을 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에게 대학은 ‘상아탑에서 벗어나 사회, 세계와 소통하고 이슈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하는 곳’이라고 했다. 이제 김 총장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가까스로 생명력을 되찾은 캠퍼스 속에 움튼 75년 학교 역사를 가꿔야 한다. 그 앞에 펼쳐진 ‘4년’이라는 도화지에서 김 총장이 말하는 공명은 어떤 모습일지 구성원 모두 집중할 때다.

▶김진상 총장 일문일답 2면



올해도 역시 분관 앞 분수대와 계단, 사색의 광장에서 웃고 떠드는 많은 학생을 볼 수 있었다. (사진1=장해린 기자, 사진2=대학주보DB)

‘본관놀이’, ‘사막’ 다시 돌아온 경희랜드

장해린 기자 sunblessyou@khu.ac.kr

캠퍼스에 벚꽃이 만개하며 서울캠퍼스(서울캠) 본관 앞은 ‘본관놀이’를 즐기는 학생들로, 국제캠퍼스(국제캠) 사색의 광장은 ‘사막’을 즐기는 학생들로 붐볐다.

코로나가 풀린 이후 캠퍼스에서 보내는 첫 벚꽃 시즌인 만큼, 수많은 학생의 얼굴엔 활짝 핀 벚꽃만큼 웃음꽃이 가득했다. 따뜻한 봄날씨에 야외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캠퍼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

며 각양각색 봄을 즐겼다.

날씨가 좋아지고 캠퍼스에 꽃이 피기 시작하면 서울캠 학생은 ‘본관놀이’를 한다. 본관놀이는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시절 교복을 입고, 본관 앞에 삼삼오오 모여 앉아 음식을 먹는 문화를 뜻한다. 올해도 역시 분관 앞 분수대와 계단까지 웃고 떠드는 많은 학생을 볼 수 있었다.

국제캠에는 ‘사막’이 있다. 사막이란 벚꽃이 가득한 사색의 광장과 중앙도서관 앞에 돛자리를 깔

고 막걸리를 마시는 문화를 뜻한다. 사색의 광장과 막걸리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줄임말이다. 사색의 광장엔 학과 점퍼를 입은 학생과 돛자리로 가득 차 빈자리를 찾기 힘들었다.

최수빈(간호학 2023) 씨는 “작년에는 만우절이 주말이라 본관놀이를 제대로 즐기지 못했는데, 올해는 본격적으로 음식을 시켜 먹고 놀 수 있어서 좋았고, 교복을 많이들 안 입을까봐 집에 두고 왔는데 후회된다”며 웃었다.

이효선(스페인어학 2022) 씨는 “올해 만우절엔 작년보다 사색의 광장에 사람이 많은 것 같다”며 “삼삼오오 교복을 입고 막걸리도 마시고 사진 찍는 모습이 우리 학교에서만 느낄 수 있는 청춘 같아 너무 좋다”고 말했다.